

사람이 만일 바른 법을 모르면 그 늙은은 소의 늙음과 같아 한갓 지리나 살만 더할 뿐, 하나의 지혜도 붙은 것 없나니.  
(法句經·노모품 152절)

# 東大新聞

창간일: 1955. 10. 13 제3호(우편번호 72) (가)급인  
 발행처: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6 (2260-3492)  
 FAX (02) 279-1270  
 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2770-2057)

## 3자회담 성사전망 밝아져

### 총학생회, 총장·이사장 차례로 면담약속 받아

총학생회는 오는 24일 총장과 면담과 추석이후 이사장 면담까지 약속받고 있는 상태에서 학내사태 해결을 위한 3자회담 성사의 가능성이 한층 밝아지고 있다.

최순호(국교4) 총학생회장과 김장모(불교4) 불교대 학생회장은 지난 20일 직지사를 방문해 추석이후 이사장 면담을 약속받았다.

또한 지난 21일 비상학생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이후 가진 집회를 통해 학교당국과 오는 24일 총장면담을 갖기로 합의한 상태이다.

비상학생총회가 지난 21일 중앙도서관 앞에서 시한부 종파결의, 학부위 혁신안 보고 공개특검발사 실시보고 등의 안건으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정족수 1천7백22명에 못미치는 7백60여명만이 참가해 무산됐다.

학생총회가 무산됨에 따라 총학생회는 이날 집회를 3차례 단 무산 규탄과 기관적 정계철회 규탄을 위한 결의대회로 바꾸고 집회를 진행시켰다.

유지건(국교4) 사범대학 학생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결의대회에서 김수정(사4) 학부위원장은 "학교당국이 학생회간부들에 대한 징계철회 문제를 가지고 기관적 행동을 벌였다"고



총학생회는 지난 21일 자 3자회담 무산과 기관적 정계철회 규탄대회로 바뀌어 집회를 진행했다.

주장하고 "학교당국은 제작자 5명을 애초부터 무기정적처리한 것으로 간주하고 9월 7일자 그 무기정적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학부위원장은 "학생들의 순수한 열정이 범죄행위로 매도당하는 현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재단과 학교당국이 성실한 자세로 3자회담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최순호 총학생회장은 "재단과 학교당국은 3차례에 걸친 3자회담요구를 독살하고 오히려 유출자로 반담, 반성문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학기때 신중히 고민했던 교육부 단선적 제출투쟁과 직지사 항의 방문등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결의대회후 학생들은 총장실 등 들어가 시위를 벌이고 오는 24일 △동국중총회 이마당 개회 △등록금합의사항 이행 △서점공동적영·기초입대 매장환원 △강성운·김현주 교수문제 해결등을 안건으로 면담을 약속받았으며 총학생회는 이날 총장면담에서 3자회담 성사를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한편 석립대책위는 이날 '동국중총과 불타의 혁명'이라는 유인물을 통해 "모든 학생정계로 아무런 조건없이 이전의 상

## 94학년도 입시요강 확정 내년 1월 8일 신입생선발

94학년도 신입생 선발 전형 일자가 내년 1월8일로 확정됐다.

전국 1백40여개 대학중 60%가 넘는 학교가 내년 1월6일 전형을 실시하는데 반해 본교의 전형일자가 늦춰진 것에 대해 교무과 관계자는 "수험생들에게 보다 많은 선택의 기회를 준다는 의미와 함께 우수신입생 유치를 위해 다른 학교와 차별성을 줬다"고 밝혔다.

94학년도 신입생 모집전형 일정은 원서교부 12월17일부터 23일까지(특차전형 21일까지) 원서접수는 특차전형 20일 양일간이며 전기전형은 21일부터 23일까지이다.

또한 특차전형의 예비소집은 서울캠퍼스 12월22일 오전10시, 경주캠퍼스 22일 오후 2시이며 면접은 23일 오전 10시에 실시된다.

전기전형은 서울캠퍼스의 경우 내년 1월7일 오후5시에 예비소집을 하며 면접은 8일 오전9시부터 실시하고 경주캠퍼스는 8일 오전 9시에 예비소집을 갖고 오전 11시부터 면접을 치른다.

또한 합격자 발표는 특차전형의 경우 12월25일 오후5시 이전까지이며 전기전형은 1월20일 오후5시 이전에 이루어진다.

한편 서울캠퍼스 불교학과, 국어국문학과, 경찰행정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등 5개과와 경주캠퍼스 한의예과, 의예과 등 총 7개과에서는 정원의 10%이내 성적 우수자(기준미정)에 한해 특차전형 실시한다.

인문계 수험생이 자연계학과에 지원하거나 자연계수험생이 인문계학과에 지원하는 등의 교차지원에 있어서는 감점 처리된다.

특차전형시 교차지원은 총점의 1%를 감점하며 전기전형시에는 수험능력시험점수의 1%를 감점한다.

한편, 예체능계에서는 감점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교무과의 한 관계자는 "수험능력시험에서 인문계 자연계열에 대한 차별이 없애고 교육의 정상화 차원에서 감점제를 폐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교무처는 원서접수시 계열별로 접수하고 수험표를 즉시 발부할 예정이다.

## 공인회계사 2차 9명 합격 개교이래 가장 많은 숫자

지난 7월8, 9일 이틀간 치뤄진 공인회계사(CPA) 2차 시험에 재학생을 비롯한 동문 9명이 합격했다.

현재 공인회계사반 지도교수로 있는 한진수(회계학)교수는 "개교 이래 가장 많은 수의 합격자가 나와 학교의 위상을 높이는 기쁨이 됐다"고 밝히고 현재 30명으로 구성된 공인회계사반에 대해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든지 장학혜택이 적다" 등의 아쉬운 점들이 있다"라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공인회계사 최종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정모(회계4) △김태호(경제4) △이정순(회계 90졸) △분성태(산공 92졸) △김연성(야간회계 93졸) △김성창(야간회계 93졸) △구자명(회계 91졸) △양재영(경영 88졸) △이준수(회계 91졸) 이상 9명.

## 90주년 사업본부 1백주년 개칭 "장기적 발전방안 모색할터"

개교 90주년 기념사업본부(본부장=박동기)가 동국발전협의회의 권고로 지난 17일자로 개교 1백주년 기념사업본부로 변경했다.

개교 1백주년 기념사업본부의 한 관계자는 명칭변경에 대해 "90주년이라는 단기간의 사업보다는 1백주년이라는 장기적 안목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히고 "장기적 안목에서 보다 발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의 변경은 아직 검토중이며 이 과정도 동국발전협의회와 논의해 확정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1백주년 개칭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사업본부에서는 이의 일환으로 오는 10월 중 동문들에게 안내홍보물을 발송하는 한편 각 직장·지역 등 단위조직별 동창회에 직접방문도 병행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보리수

집 떠나는 길손만이 아니라 누구나 그가 처한 환경과 처소에서 생활의 리듬을 바꾸어 멀리나 가까이 떠나 본다는 것은 육신이나 정신에 신선감을 불어 넣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그 시기가 일상사에 시달리다 폭설 수 있는 주말이 되고 보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여행은 사람을 성숙하게 하고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형상없는 寶이다. 사람에게 따라 그 보고는 다르게 와 닿겠지만 이 가을에 느끼는 인생에 대한 의미는 생각 생애가 영동한 진주처럼 마음을 파고드는 괴력이 있기 마련이다.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만큼 느끼는 법이다. 그 경험의 폭은 반드시 지적인 것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작적인 경험과 삶의 체험을 통해서이다. 물론 경험적인 시각의 영역을 훨씬 초월하는 것이 삶의 본성이고 보편이기에 관망하는 많은 사람들

들은 실은 말을 보지 못했고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또한 말을 듣지 못한 것이다. 가을을 타서만이 아니라 풀벌레의 합주가 쉬임없이 이어지는 밤이면 웬지 생의 의미를 새삼스레 음미해 보게된다. 생은 어느 곳에서 왔고, 죽

은은 어둠을 향해 가는 것일까. 삶은 한 조각 뜬 구름이 날아 난 것과 같고 죽음은 한 조각 뜬 구름이 없어짐과 같다(生從何處來 死何處去 生也一片浮雲起 死也一片浮雲滅)는 말이 붙연듯 생각된다. 이 말은 생각 하기에 따라 사람마다 의미 부여를 달리 할 수 있다. 얼핏 생각하면 인생이란 참으로 무의미 하다고 생각 할 수도 있겠고 한편으로는 단 한번 뿐인 초로와 같은 인생을 어디에다 의미부여를 하며 실가 깊은 사색에 잠길 수도 있는 일이다. 여기서 사색의 나래를 퍼

자. 뜬 구름이 사라졌다고 해서 뜬 구름을 있게 한 수증기마저 아무 없지는 것은 아니다. 뜬 구름과 같은 것은 우리의 육신과 같다는 것을 확연히 알아야 한다. 육신은 地·水·火·風이라는 원소들이 모여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자체에는 고정불변의 성질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연이 흩어지면 죽음이라는 현상이 찾아 오기 마련이고 거기에는 生老必滅 會者正離의 인연법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적용되는 것이다.

우리 삶의 모습은 다산 이러한 절묘습에 안 있지 않다. 홀로 한 물건이 항상 드러나 있으니 고요하고 요지부동하여 생사를 따르지 않네(獨有一物常寂靜 湛然不隨於生死) 崔玄覺

## 수습기자원서 24일 마감

동국대학교 학생기자단 수습기자원서 24일 마감

### 제31회 학술상 작품 모집

본교 학생들의 학구열을 고무하고 학문적 성과를 진작시키기 위해 제정, 알찬 수확을 거두은 본사 학술상이 올해도 30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학술상에도 학문연구에 정진하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로 동국의 학풍을 더욱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분야  
 인문과학상: 본상 및 가작(본상 25만원, 가작 20만원)  
 사회과학상: 본상 및 가작(본상 25만원, 가작 20만원)  
 자연과학상: 본상 및 가작(본상 25만원, 가작 20만원)

◇ 응모요령  
 원고매수: 人文·社會·自然科學 3개 분야 모두 2백자 원고지 60매 내외(단,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소속학과와 학술논문예 한함)  
 응모자격: 서울 및 경주캠퍼스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 심사위원: 본사에서 위촉하며 심사결과 함께 발표

◇ 논문제출: 1993년 10월 4일~7일까지 본사에서 접수

◇ 시상작 발표: 1993년 10월 27일 本紙 紙上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바람  
 전화 (02) 260-3491-2

동대신문사

우리의 것을 지켜-가는 젊음이 있습니다. ㉠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 탐구하는 젊음이 있습니다.

동양 최고의 천문관측대인 첨성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한글, 팔만대장경, 측우기, 금속활자... 널리 인간을 이롭게 했던 선조들의 빛나는 과학, 문명의 업적들은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온 힘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선조들의 지혜를 본받아 끊임없는 탐구와 노력으로 보다 나은 미래를 건설할 것입니다.

한국전력은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한 우리 젊은이들의 탐구정신의 바탕이 되고 싶습니다.

밝은미래를 열어나가는 한국전력공사

이달의 여론조사 한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녀이름 순 한글로 지을터"... 63% 응답자 다수 외래어 범람 경계

본사 여론조사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통해 독자 여러분의 학교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매달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이번 달에는 10월9일 한글날을 맞아 한글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를 서울·경주 3백4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자녀의 이름을 한글과 한자중 어느것으로 짓겠다는 물음에 한글 2백5명(62.5%), 한자 1백23명(37.5%)으로 응답해 한글 이름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자어나 외래어를 한글과 짝하는 것에 대한 질문엔 ①한글 필요 없다(1백6명)라는 의견에 과반수 이상이 동의했고 기타의견(70명)의 대부분이 '바꿔서 어색하지 않고 어느정도 대응에 호감을 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만 부분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으로 조사돼 한자어나 외래어를 한글화 하는 것에 많은 학생들이 동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언어사회에 대해 물어본 마지막 질문엔 ②외래어의 범람으로 언어사회가 혼란스럽다

(2백18명)고 대다수의 학생이 답했다. 기타의견(43명)으로 '대 학생의 언어가 너무 많이 축약이 되어서 오히려 생소하다. 외래어를 사용하는 우리 자신의 자리가 필요하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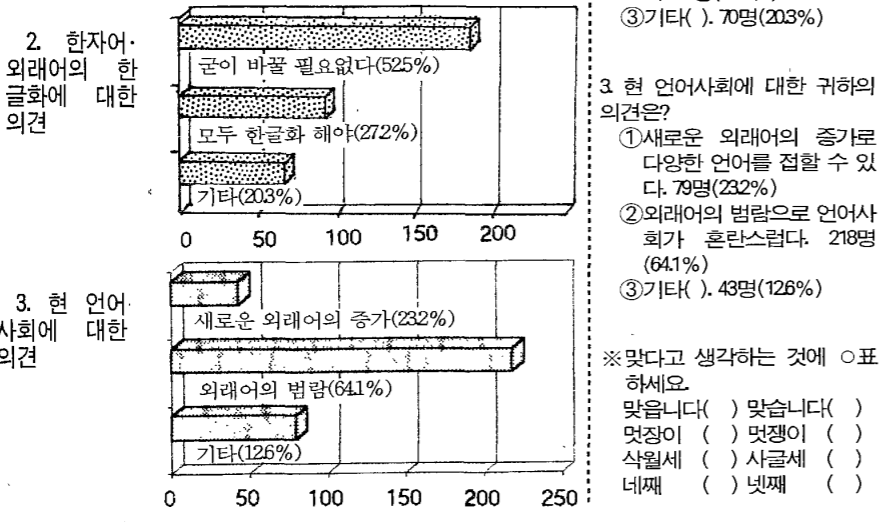
학생들이 새 한글맞춤법을 어느정도 알고있나 알아보기 위해 제시한 문제의 정답은 '맞습니다(3백28명, 95.3%), 맞지 않습니다(2백2명, 58.9%), 사글세(2백21명, 65.0%), 빗제(1백83명, 53.4%)'이고 괄호안에 표시된 숫자가 정답자 수이다.

이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다수의 학생들이 한글을 선호하고 현 언어사회가 외래어의 범람으로 혼란스럽다고 생각하고 있다. 생각만큼 현실에서의 학생들의 자각과 실천이 요구될 것이다. 또한 새 한글맞춤법에 대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길 당부한다.

실문에 응해준 모든 학생들과 자료분석을 담당해준 통계 조사연구회에 고마움을 전한다.

(여론매체부)

1. 자녀의 이름을 짓는다면 어느것으로?  
 ①한글(1-1로) 205명(62.5%)  
 ②한자(1-2로) 123명(37.5%)
- 1-1)이유는?  
 ①부르기 쉽다. 18명(8.9%)  
 ②한문보다 어감이 좋다(이쁘다) 155명(76.4%)  
 ③기타( ) 30명(14.8%)
- 1-2)이유는?  
 ①옛부터 한문으로 지어왔다. 15명(12.2%)  
 ②남다른 의미를 심어줄 수 있다. 84명(68.3%)  
 ③기타( ) 24명(19.5%)
2. 한자어나 외래어를 한글화 하는 것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예)출름식⇒해오름식  
 리바운드⇒핑공점기
- ①이미 일반화된 외래어는 바꿀 필요가 없다. 181명(52.5%)  
 ②모두 한글로 바꿔야 한다. 94명(27.2%)  
 ③기타( ) 70명(20.3%)
3. 현 언어사회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①새로운 외래어의 증가로 다양한 언어를 접할 수 있다. 79명(23.2%)  
 ②외래어의 범람으로 언어사회가 혼란스럽다. 218명(64.1%)  
 ③기타( ) 43명(12.6%)



지나호 동대신문을 읽고 증언문화 소개

지나호 동대신문을 보면 문화에 관련된 기사가 태반이 있다.

언뜻 보면 모두 책소개인듯한 인상을 주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책을 소개한 기사는 한편 증언문을 알기된다.

6년 정기사인 '상상'에서 본 신세대문화와 문화에서는 흔히들 버리고 있는 '신세대 신드롬'을 설명하기보다 신세대라는 규정이 잘못된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같은 면에 실린 '현실문화연구'에 대한 기사는 신세대문학을 펴내는 출판사에 대한 소개였으나, 잘 알고 있지 못한 단계에 대해 좀더 명확한 설명이 되어 있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또하나 이해하기 힘든 점은

분부터 시작해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작가가 생각하는 증언문학을 펴리며 기존의 역사소설을 쓰던 작가들에 대한 비판도 볼 수 있어 역사소설에 대한 또다른 관점을 찾을 수 있었다.

위에 써온 글과는 다르지만

2년의 초대만평은 그런이가 무엇을 비판하려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점이다. 학내문제에 대한 더 넓고 큰 고민이 결여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앞선다.

김일환  
 (문과대 국문과·본사 모니터)

역사소설 이해 도움 줘

신세대라는 개념규정은 있을수 없다는 기사와 신세대의 입맛에 맞는 신세대문학을 펴내는 출판사를 소개한다는 것이 상충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최근 '적과 동지'라는 7부 대하소설을 펴낸 강준석의 글은 작가가 직접 구원문화와 증언문학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오늘을 사는 동국인 - 남귀정 선생님



"주입식 교육으로 우리사회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전교조 사립지회 사무국장 남귀정 동문. 우리사회가 민주 사회로 가기 위해서 학생들이 올바른 세계관을 갖출 수 있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88년 본교 국문과를 졸업한 남동문은 최정여중에 재직중 '학교교육'에 뜻을 두고 전교조에 가입했다가 89년 8월 학생들을 걸을 떠나게 되었다. 그리 길지 않은 교직생활이었지만 획일적인 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이 무시되는 현실에 '누구를 위해 가르키는가'라는 갈등을 느껴 교육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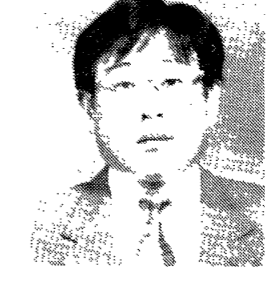
공부는 스스로 하는거라고 생각해 숙제를 한번도 내주지 않았다는 남동문은 사회적 벽인 통문을 허물고 다른사람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무언가 배우려는 자세로 깨어있는 삶을 살기를 학생들에게 당부한다.

"투가리예요. 투베기 같습니까?" 학생들이 붙여준 별명이라며 얼굴 가득 부끄러운 웃음을 짓는 남귀정 동문. 아이들을 가르쳐 사회를 밝게할 좋은 학생으로 만드는 것이 '땀'이 아니라 두 눈에 굳은 의지의 빛을 맺는다는.

민주운동의 회보를 계속 받고 회비를 못내 미안하다는 말을 전해 달라라 '투베기'같은 웃음을 지으며 말을 맺는다.

해맑은 아이들 걸음으로 돌아갈 날이 과연 언제일지... 선생님의 꿈이 이뤄질날을 기다려본다. (榮)

동문칼럼



옥시찬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총무국장·무역80출)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의 진리가 있다. 선과 악은 끊임없이 충돌하고 악은 파정속에서 항상 우세하지만 선은 끈질긴 생명력으로 최후의 승리를 역사속에서 이루어 낸다는 것이다.

토인비는 역사를 도전과 반대에 의해 발전해 나간다고 했다.

5천년 역사속에서 이땅은 한번도 개혁이 외형적으로 승리를 이루어 낸 적이 없다. 그러

는 병균을 퇴치할 새로운 처방전, 새로운 항생제를 기필코 찾아 내야만 할 것이다.

그 처방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다. 병균이 내성을 가질 수 없는 항생제의 개발이 시급한 문제이다. 우리는 그동안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의 병폐를 치유하는데 많은 효과가 있었음을 알고 있으며 역사속에서 어떤 경우에는 완치 일보 직전까지 갔었던 사례들도 기억하고 있다.

올바른 사회주의의 재건보다 정형된 사회주의의 부활이야말로

이땅을 포기한 방관자 되지말자

나 파사정권의 개혁정신은 역사발전의 주춧돌이 되면서 영원한 승리의 생명력을 얻게 된다. 묘청의 난이 그랬고 갑오농민전쟁이 그랬으며 지리산 줄기에 맺힌 투쟁의 열정이 그랬다.

이름 우리들은 사회주의의 몰락이라는 표현을 자주 접하게 된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역사의 발전법칙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기괴한 현상이다.

자본주의의 모습, 그것도 이 땅의 친민주주의가 안고 있

는 엄청난 모습, 외세가 기울하고 있는 신식민주의적 모습이 엄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치유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 처방전인 사회주의가 그 역할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중병이 걸렸음에도 치료제가 없다면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길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땅에서 태어나 이땅에 묻혀질 우리들은 이땅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고 방관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땅을 죽음으로 이끌어 가

로 바로 이 땅의 모습을 타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을 다시 한번 믿지 않을 수가 없다. 젊음과 올바른 사회주의가 결합됐을때 그것은 더욱 효과적인 고안된 처방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비록 새로운 처방전을 찾는 일이 쉽지 않더라도 우리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은 일이고, 우리들은 이 땅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이다.

열린글터

국보법위반 구속자 속출 철폐없는 개혁 '보여주기식'

지난 15일 대구경북지역총학생회연합 의장 권혁명(계명대 총학생회장)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총청총련 의장에 이어 두번째로 구속됐다. 지난 한국대학 총학생회연합 제1기 출범식 사회를 맡았던 권의장은 이북의 조선학생위원회와 전화회담을 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죄로 수배를 받아왔다.

또한 현충원 중앙상일위 전원이 같은 죄목으로 수배를 받고 있는 중이다. 문민정부를 떠돌며 출판하며 기존의 역사사설을 쓰던 작가들에 대한 비판도 볼 수 있어 역사소설에 대한 또다른 관점을 찾을 수 있었다.

위에 써온 글과는 다르지만

우리는 지난 1학기부터 남북합의서 국회비준(동의)을 위한 1백만인 서명운동을 기억한다. 이 서명운동은 남과 북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상호 존중한다는 내용의 남북합의서가 국가보안법상 불법이던 단계로 규정된 이북의 인식에서 서로 배제해 국가보안법의 존재근거가 없음을 4천만 국민들에게 알리내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문민정부는 이북과의 핵공방을 이유로 남북대화를 거부한채 국가보안법의 개정과 차질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치관계법준 국가보안법이 도미위에 오르게 되는데 지금의 김영삼정권은 그 개정 논의를 회피하며 개정의 의지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과거 군사정권의 비리가 백 일하에 드러나고 비리공직자들이 사장의 칼바람에 하나 둘씩 떨어지나가고 있는 지금 군사독재정권의 산물인 국가보안법과 철폐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회피한다면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국정조사, 공직자 재산공개, 금융실명제 실시는 보기가 시 사업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문민정부를 주장하는 사람들 이라면 그 이름에 맞게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남북합의서의 국회통의를 통해 조국통일의 시금석을 마련함과 동시에 아직도 수배의 압력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수배자와 양심수들을 즉각 석방해야 할 것이다. 민측은 어떤 사상과 제도보다 앞선 개념 즉, 우리민족 제일주의(?)를 표방하며 출범한 문민정부, 그 문민정부의 이름값은 보이기식 개혁이 아니

독자 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글, 사진, 만화를 받습니다. 주지하지 마십시오. 문외는 280-3841~2, (0561)770-2167

경주 무역학과 명칭변경

국제경제학 걸맞는 준비시급

경주캠퍼스 무역학과가 '국제경제학과'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

'무역', 지금 이 시대에서의 무역은 다른 나라와의 교역이 필수적이다. 그런 이때 학과 명칭의 개명은 시대의 대세에 뒤

"휴게실은 흡연실?"

우리 학교엔 여학생들을 위한 휴게실이 중앙도서관 안에 그루의 단에 있는데 그것은 라이터로 담배를 붙이는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자신들이 멋스럽다고 생각하는지도...

휴게실이란 휴연실이란 어떻게 이용하는 따지고 싶진 않지만, 남녀평등을 외치면서 뭣뭣 못하게 화장실에서, 여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만 휴연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단지 바라고 싶은 것은 금연이란 문구가 붙어있고, 휴게실은 휴게실같이 이용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을 꼭 잘 알리고 남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정훈 (문과대 농학과)  
 고재완 (상경대 무역학과)

목errick

- 축하합니다
  - 9월20일 남철우 형의 귀박진 날을 축하드립니다.
    - 신문사후배 일동
  - 통계학과 축전 축하합니다. 그리고 93형제와 화룡이 생일 뒤늦게나마 축하합니다.
    - 93통계 영재(독목이)
  - 22일 윤인자 범우님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93해경
  - 화창한 9월에 생일을 맞는 수인이, 승진이, 선배, 그리고 용감이 모두 모두 축하한다.
    - HAM동기가
  - 재인이, 주희, 이번 두주배를 축하해
    - 후배를 사랑하는 한 선배
  - 축/ 정훈 입산(논산)
    - 건대부고 동문회
  - 기계공학과 정형이생일(15일) 축하한다. 답사때문에 참석못해 미안하구 검토 열심히 해라.
    - 수희, 인숙
  - 9월23일 남광우 후배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포비아 건강해라)
    - 89전기공학과 일동
  - 경숙이의 생일을 축하하며...
    -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 경계(야) 酒
  - 주상우 9월21일 생일축하한다.
    - 공심에서 과학으로 전진하는 새/사/연
    - 농생 92일동
  - 9월 M.T로 전개 그물러진 모습 이 보기 좋습니다. 우리 Family가 압구정동 동아빌딩 상주 대항전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다같이 축하합니다.
    - 홍보부장 남희
  - 작공명이 태어난 것을 Congratulation!!
    - 93사회 고구미 일당
  - 9월24일 전기공학과 89급정훈화우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 8944번 일동
  - 9월23일 물에 뜬 찌꺼기 생일 축하합니다-진심!
    - 회합 윤경
  - 백성17기 첫 공연을 축하합니다.(9월25일, 서울랜드)
    - 백성 애질부정&음률관리부장
  - 9월20일은 사학과 40주년이라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 축하합니다.
    - 사학과 학생회를 사랑하는 학우
  - 수고하셨습니다
    - 야간강좌 노래패협회 제1회 정기공연을 같이한 노래패 친구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 알지가 나는데요. 알지 만드라 수고하셨습니다.
  - 공심에서 과학으로 전진하는 새/사/연
  - 지교 여러분! 답사 잘 마쳐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 92
  - 가교 여러분! 우리 노래도 잘 하구요, 시식회도 잘하구요, 뒷풀이도 잘합니다. 참 수고 많이 했어요.
    - 언니들
  - 佛佛사여러분! 체육대회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정진하여 하년된 동발의 모습을 보십시오.
    - 회장
  - 준익선배, 설문 분석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부탁드릴게요!
    - 榮
  - 알립니다
    - 있잖아요, 요번주 금요일(24일) 5시30분, 중앙당으로 오세요. 아마 굉장히 즐거울거예요.
      - 현여울
    - 9월22일부터 DUCA에서 전시회가 있습니다. 비록 부족한 작품들이 많지만 모두 열심히 노력한 결과입니다. 많이 와서 구경하세요.
      - DUCA 열기 명훈

- 이 가을 노래와 술과 만남을 여러분에게~
  - 몽계구름 37기 일동
- '평균'을 개강파티를 23일 드디어 벌입니다. 5시까지 농대비로 전원 모여주세요(그간 안나오신 회원도 환영)
  - 회장 백
- 열심히 합시다
  - 사회3학년 M-T(중도에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 건호
  - 국교과 두레갯, 축전 길놀이, 소고춤 연습 열심히 잘해봅시다.
    - 93지민
  - 국교 93차용식 힘내라.
    - 93정
  - 93수교축전을 준비하고 계신 맥들!! 계속 수고 많이 하시구요, 힘들어도 웃고 합시다. 자랑스럽습니다.
    - 킬리만자로의 표범
  - 秋象준비하는 일문인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
    - 89학번 선배가
  - 국교과 학자선봉대 대장님! 여여 힘내세요.
    - 화자선봉대를 사랑하는 대원이
  - 순호오빠, 정구오빠, 치건오빠, 상호오빠 모두 모두 힘내세요.
    - 오빠들을 무지 사랑하는 개망초

- 그리고...
  - 여수항우회 11월 카니발과 '동백' 집발간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 여수항우회청
  - 유미의 탁구출전을 축하합니다.
    - 국서기 기숙사일동
  - 가칭 87학번 강형석씨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 가칭87학번 정정래
  - 사회복지학과 정명태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행정 또미나가
  - 9월23일은 우리씨에서 제일 잘나가는 민이의 20번째 생일이라고 축하한다고 전해주시요.
    - 동국연극회일동
  - 영문과 부학회장, 서리별 G-M-P부회장, 성도, 경제 동문회장, 영문과내 동아리 HUSE대행을 맡고있는 박성재형의 24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 HUSE회장
  - 알립니다
    - 9월21일 불교아동학과 전학우의 염원인 불교유치원 설립기금 마련을 위한 하루 찾집을 합니다.
      - 불교아동학과 대행
    - 27일에 있을 Metal Age 뮤직 비디오 상영회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 Metal Age 일동
    - 현대동문회를 22일에 합니다. 많이 참석합니다.
      - 동문회를 사랑하는 학우

- 은정아/ 생일축하해 힘을 내서, 해보자 우리.
  - 정보신인 인숙, 은경
- 23일은 국문과 이별 이선정의 22번째 생일입니다. 축하합니다.
  - 국문과(?)
- 나의 소중한 친구인 윤경, 기철이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앞으로 연락도 자주하자.
  - 상균
- 9월22일 일문 2년 선배(박)의 생일입니다. 모두 축하해주세요.
  - 누구게
- 9월25일 생들모도 동기인 윤경이 그리고 9월26일 기철이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 일

- 그리고...
  - 한울회 L.T.가요 모두 밝은 웃음을 띄고 건강하게 기다오길 바랍니다. 아울러 좋은 추억도 구미 금오산 가득 채우고 왔으며...
    - 9기들리
  - 중어중문이 백성제와 학술제에서 좋은성적,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어주 바래요.
    - 중문 '93
  - 홍이형, 정남아, 수일이 보경사 아주 재미있게 보내어서 아주 기쁩니다. 언제나 명랑하고 밝게 살기를.
    - 정산 선호가
  - 조경학과와 발전을 합니다. 무사히 끝난 M-T를 위해, 영조원을 위해...
    - 1학년과대표 드림

- 축하합니다
  - 유미의 탁구출전을 축하합니다.
    - 국서기 기숙사일동
  - 가칭 87학번 강형석씨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 가칭87학번 정정래
  - 사회복지학과 정명태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행정 또미나가
  - 9월23일은 우리씨에서 제일 잘나가는 민이의 20번째 생일이라고 축하한다고 전해주시요.
    - 동국연극회일동
  - 영문과 부학회장, 서리별 G-M-P부회장, 성도, 경제 동문회장, 영문과내 동아리 HUSE대행을 맡고있는 박성재형의 24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 HUSE회장
  - 알립니다
    - 9월21일 불교아동학과 전학우의 염원인 불교유치원 설립기금 마련을 위한 하루 찾집을 합니다.
      - 불교아동학과 대행
    - 27일에 있을 Metal Age 뮤직 비디오 상영회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 Metal Age 일동
    - 현대동문회를 22일에 합니다. 많이 참석합니다.
      - 동문회를 사랑하는 학우

1970년대 이후로 증가하기 시작한 서울시의 인구는 1993년 현재 약 1천1백만 명을 넘어섰고, 이에 따른 차량의 증가 및 교통문제의 해결책으로 지하철이 교통수단으로 등장한지 20여년이 지났다. 서울시 지하철은 1978년 말에 1호선을 선두로 하여 1985년에 3, 4호선이 완공되었고 지하철의 이용자는 4백만명으로 서울시 인구의 40%정도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환경오염이 외기오염의 유입이나 시설물의 노화로 발생하여 지하철 운행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시사되었다. 최근 들어 실내공기오염과 지하공간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지하철 근무자 및 이용객에 대한 쾌적한 환경과 건강한 삶의 요구로 보다 철저한 지하철내 환경관리가 결실될 필요하다고 하겠다.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단열재 중의 석면(asbestos), 각종중금속 등으로 이러한 물질은 흡입시 인체에 매우 유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유분진의 경우는 이용객의 잦은 왕래와 열차가 플랫폼으로 진입시 급격한 기류의 변화, 타인과 출입통로 등을 통한 외기의 유입, 지하철역과 연결된 지하상가로 부터의 유입 등으로 지하철역사내의 분진농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

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폐열원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라돈, 석면, 포름알데히드 등은 주로 건축자재 등에서 발생되는데 라돈과 석면의 경우는 역사내의 벽면과 천정부, 바닥면 등의 마감재로 사용된 타일과 천정면의 단열재로부터 방출되며 라돈은 지하철역 부근의 지하암반 또는 지하수에서 방출되는 라돈함량이 높은 것으로 추정 되고 있다. 포름알데히드는 건축자

관리대책으로는 첫째, 실외공기오염이 유입되지 않고 실내공기가 원활히 환기 되도록 효율적인 환기설비의 개선이 강구되어야 한다. 예로서 지하철역 부근의 보도에 위치한 흡입구는 차도에 가까워 자동차에서 발생하는배기가스가 유입되기 쉽고 보도자들이 버리는 담배꽂초 및 먼지 등이 유입되기 쉬워 이같은 잘못 선정된 흡입구를 보도바닥에서 지상 2m이상으로 높이거나 흡입구를 공중분출판으로 설치변경하는 방법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전기집진식의 공조시스템이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환기설비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승강장에서의 열차에 의한 분진과 열을 차단하기 위한 분진흡입기를 차량자재에 부착시키거나 승강장에 유리벽의 설치도 고려될 수 있다. 열차의 운행중에만 가동되는 환기설비를 지정이후에도 점검하여 외기 오염도가 높은 시간대에는 가능한 환기를 억제하면서 강력한 필터를 통해 실내공기를 세균을 제거하여 환기시키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지하철내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승강장과 지하철역 공기오염으로 인한 지하철

### 시사

김 운 신

한양대 교수·환경 및 산업의학 연구소장



## 역내 분진농도 기준치 초과

### 지하철 공기오염의 현황과 관리대책

이와 같은 지하철내 각종 환경오염증가상 문제가 되는 것은 공기오염으로 이용객과 지하철내 근무자가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운행시간, 승객수, 차량의 수명등의 조건에 따라 오염도는 변화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지하철내 실내공기 오염물질은 지하철역사내의 부유분진과 이산화탄소(SO<sub>2</sub>), 이산화질소(NO<sub>x</sub>), 일산화탄소(CO) 등의 가스상물질, 지하암반, 가스상물질의 농도가 높은 외기의 역사내로 유입되어 실내농도에 영향을 주는

사되고 있다. 특히 부유분진 중에서도 호흡성분진(PM<sub>10</sub>)의 농도가 지하철 2호선의 경우 190μg/m<sup>3</sup>로 대기기준치인 150μg/m<sup>3</sup>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러한 호흡성분진은 호흡시 폐포까지 흡입되어 침착되고 폐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또한 가스상 오염물질들은 주로 인접해 있는 지하철역사로부터 유입되거나 외기의 역사로 유입되어 실내농도에 영향을 주는

제 또는 인접한 지하철역사의 역류, 포복점 등에서의 배출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의 지하철 공기오염의 조사결과 공기오염물질중 특히 분진의 농도가 일부역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어 이에 대한 중점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지하철내의 공기오염은 외부로부터의 오염된 공기의 유입과 지하철도 선로에서 발생하는 공기오염으로 나눌 수 있다. 지하철내 공기오염에 대한

### 사설

## 건설할 때이다

가을의 들머리인 이즈음 울여들의 행패를 당감해주시라도 하듯 햇빛이 따갑기만하다. 한여름 동안의 땀흘린 노력이 배아 흐르 담스럽게 익어가기 인생마중이다. 그렇다면 다들 성숙과 결실의 마무리에 바쁜 이 때 우리 동국의 사정은 어떠한가. 지난 5월초부터 기치를 올린 부정부패사퇴론 등 재단형 신탁은행은 학생징계와 해체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학생들의 의지나 기대는 아직까지 재단과 학교당국의 완강한 태도와 입장에 부딪뜨려 갈수록 더욱 심화시켜 왔다.

쌍방간에 명분추구에만 급급하여 '개인의 의사가 먼저냐' '대외의 친명'이 먼저냐 하는 전제조건우선의 형식논리를 내세우고 불신 속의 교착상태를 거듭하다가 가까스로 정제해제로 승승이 트이는데는 다행이다. 막상 대화를 통한 진전상은 여전히 감감하기만 하다.

그러나 지난 21일 비상학생총회를 통해 오는 22일 학교당국의 책임있는 대화를 하겠다는 약속을 확보하였다. 이번이야말로 쌍방이 진지하게 내용있는 대화의 장을 꾸려 나가야 할 것이다.

정년 학교당국이 소신있게 3차회담의 장을 통해 재단형신탁은행과 동국중층의 국면을 풀어나가려 한다면 재단의 부담을 스스로 짊어지려는 경직성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재단·학교당국과 학생들은 불신과 기만의 첩바퀴를 벗어나 동국중층이라는 엄숙한 소명감으로 대화에 임하자. 여기서 우리는 학교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는 22일로 약속된 총장·총학의 만남이 생산적인 결과를 건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매번 주변상황과 여건 고려 등을 내세우는 무책임과 무소신의 연속드라마는 이제 더 이상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각인하고 학교측은 대화에 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모두는 학생들이 제기한 재단형신탁은행을 단방성의 일일평판으로 치부하여 이제 그 대세가 소진되어버린 '상향탈'으로 안도하거나, 단순히 학생운동차원의 상투적인 한 걸음로만 국한해 버리는 안일성을 새삼 반성해야 할 것이다.

여전히 재단형신탁은행은 활활타오르고 있다. 서둘러 각 주체들은 문제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모든 문제를 학생이나 재단·학교당국에만 떠맡기고 오불관 언해서는 안된다. 동국을 지탱하고 있는 여러 역량이 허실한 회하게 나서서 문제해결을 위해 대응적인 자세로 팔을 걷어부쳐야 한다.

한편으로, 우리모두가 관심을 갖고 따져보고 풀어나가야 할 사안이 한둘이 아니다.

교정 곳곳에 대저보를 통해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학부위 의혹시비의 문제이다. 언제까지나 문제제기 학생과 학부위 그리고 총학의 진상규명 노력에만 맡겨두어서는 안될 것이다. 부절 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킬까봐 추이만 지켜보는 학교당국의 태도는 어정쩡하기만하다. 이대로 두면 자칫 학생상호간에 정파적 분열과 대립의 극한상황으로 문제가 일탈되어 쌍방간의 전술 단박과 목적이 합물될 여지가 보인다.

그리고 경주캠퍼스의 교육환경을 뒤흔들어놓는 고속전철노선의 문제이다. 지난해 범불교적·범동국적 문제로 대책을 강구했던 그때의 문제의식을 새삼 환기시켜야 할 것이다. 경주캠퍼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당초의 기본노선으로 환원되는 것이 지상과제임이 분명하다. 이를 관철하고 우리 배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보다 조직적으로 집중되어야 한다.

그밖에, 90주년 기념사업인 동국학술문화관 건립의 추진상황이 궁금하다. 사업계획이 구체화되기도 1년여가 넘는데도 이제 와서 건축허가과정에서 담고고제한기준에의 저촉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다. 모금운동과 아울러 사업전반에 대한 개료가 투명하게 진행되었으면 한다.

정말 동국의 오늘은 여러 난제가 가로막고 있다. 물론 재단, 학교당국, 동창회가 한 동아리가 되어 '동국발전협의회'라는 기대되는 기구도 가동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발전방안의 강구에 신뢰를 보낼 여지가 많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모든 문제는 교수, 학생, 직원등 대학의 체제제가 동등적으로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급선무다. 상층부 중심의 정보독점과 독선적 일방운영은 안된다. 매사는 공개리에 공명연한 체제제의 공감대를 일구어 강력한 동력을 실은 추진이 되어야 한다.

자, 우리모두 절망하거나 자포적적인 자기비하에 빠지지 말고 건설적인 대안모색을 위해 주체적으로 나서자.

(사회부)

## 박물관 활성화 방안 모색

"우리학교인에도 박물관이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데요?"  
지난주 본사 여론매체부에서 한 설문조사에서 박물관 관람을 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오히려 이렇게 반문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중문편 회화관 옆에 위치한 박물관은 입구가 좁고 내부가 어두워 학생들이 쉽게 발걸음을 내딛지 못한 다. 우리나라 유일한 불교박물관으

로서 지난 68년에 개관한 본교 박물관은 3층건물로 1층은 전시실, 2층은 교사자료실과 특별전시실, 3층은 유물창고와 세미나실이 있으나 특별전시실은 현재 정리중이라 개방하지 않고 있다. 시청각실 기능을 갖춘 세미나실도 미술과 학생들의 강의실로만 이용될 뿐이다. 박물관에 지급되는 예산은 일년에 3천여만원으로 그 돈으로는 유물구입은 생각도 못할 뿐더러 유물관리, 연구조사비로도 부족한 형

편이다. 원래 건물또한 박물관으로서 지어졌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물보관에도 적당치 못하다.

한편 경주가 한국불교문화의 성지라는 지역의 특수성을 안고 불교 유물의 수집, 유적의 발굴조사와 연구등의 목적으로 세워진 경주캠퍼스 박물관 역시 올해로 개관 10주년을 맞았으나 유명무실한 상태다.

개관당시 도서관 건물의 4층에 전열실을 마련하였다가 88년 현재 위치한 도서관 2층으로 확장하였으나 한국불교 문화와 고고학 미술사 관련학과 학생들을 제외한 내부 분 학생들은 박물관 위치조차 모르고 있다. 또한 개관시간마저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12시부터 2시까지로 정해져 있어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물관 조교는 "개관시간이 짧은 것은 인정하지만 직원보충이 되지않는한 개관시간 연장을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간간히 한두명씩 둘러보고 나가는 박물관 이용실태에 학생들이 유물에 무관심하다는 뒷말 할 것은 못되며 시청각부 예산부족때문만도 아니다.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행사한번 기획하지 못하고 있어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문제다. 일년에 한번만 열리는 학술시 '불교미술'도 교수와 전공대학원 학생들에게만 돌려질 뿐이고 도록도 83년에 발간한 것으로 10년이 지난 현재에도 사용하고 있다.

타대 박물관 실정을 보면 이화여대의 경우 개교기념일에 맞춰 작은 '서화탄본전시', 올해는 '조선백자'도 박물관등 특별전시회를 개최해

관이다. 원래 건물또한 박물관으로서 지어졌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물보관에도 적당치 못하다.

한편 경주가 한국불교문화의 성지라는 지역의 특수성을 안고 불교 유물의 수집, 유적의 발굴조사와 연구등의 목적으로 세워진 경주캠퍼스 박물관 역시 올해로 개관 10주년을 맞았으나 유명무실한 상태다.

개관당시 도서관 건물의 4층에 전열실을 마련하였다가 88년 현재 위치한 도서관 2층으로 확장하였으나 한국불교 문화와 고고학 미술사 관련학과 학생들을 제외한 내부 분 학생들은 박물관 위치조차 모르고 있다. 또한 개관시간마저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12시부터 2시까지로 정해져 있어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물관 조교는 "개관시간이 짧은 것은 인정하지만 직원보충이 되지않는한 개관시간 연장을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간간히 한두명씩 둘러보고 나가는 박물관 이용실태에 학생들이 유물에 무관심하다는 뒷말 할 것은 못되며 시청각부 예산부족때문만도 아니다.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행사한번 기획하지 못하고 있어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문제다. 일년에 한번만 열리는 학술시 '불교미술'도 교수와 전공대학원 학생들에게만 돌려질 뿐이고 도록도 83년에 발간한 것으로 10년이 지난 현재에도 사용하고 있다.

타대 박물관 실정을 보면 이화여대의 경우 개교기념일에 맞춰 작은 '서화탄본전시', 올해는 '조선백자'도 박물관등 특별전시회를 개최해



◇ 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자체기획행사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외부인의 참여또한 유도해 낼 수 있었고 요즘엔 유물비디오 상영으로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다고 한다. 성공관대의 경우는 공자탄생을 기념하는 석간제에 전시하던 악기를 대어하며 봄·가을에는 학생들과 함께 비문을 탁본하려 가는 행사를 마련했다고 한다.

본교 박물관이 좁기는 하나 고려대처럼 신인생 오리엔테이션에 단체관람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던 점도 어디에 어디에 박물관이 있는지 모르는 학생은 없지 않을까 싶다.

박물관의 한 연구원은 "훌륭한 국보 3점과 보물9점이 있는 것을 학생들이 알지 못하고 관람조차 안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박물관 개관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방향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화여대와 연세대가 개교 1백 주년을 맞아 기념관안에 박물관이 자리잡았듯 박물관측은 제구실을 할 수 있는 대학박물관으로 정립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독립적인 박물관

관 건립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캠퍼스박물관측은 지난 등록금 합의사항에 65년으로 착공예정되어 있는 1호차로 모르고 있으며 본교는 기념관 1호차로 사업에 박물관 발전 전망에 대한 어떤 계획도 없는 상태다. 다만 서울캠퍼스 박물관 개관 30주년 행사를 일본 불교대학과 함께 열어볼 특별전을 추진하고 있을 뿐이다.

불교박물관이난만큼 불교미술이 주류인 박물관이 활성화될 경우 학교발전뿐 아니라 한국불교연구에 큰 공헌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주캠퍼스박물관은 경주라는 특수한지역의 문화유물발굴과 축적관리의 임무도 지니 독립된 박물관 건물과 전문인력 확보, 예산의 뒷받침등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또한 박물관 자체 노력을 통한 홍보활동으로 대학내 학술기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사회부)

### 東國漫評

김상남

우리의 現代 세계의 現代

# 기술로 세계와 승부한다

현대는 끊임없는 도전과 개혁정신으로 세계의 일류 기업들과 당당히 승부하기 위해 첨단기술 개발에 매진해 왔습니다. 현대가 만드는 반도체, 자동차, 자기부상열차, LNG선은 세계의 초일류 기술제품으로서 기술한국의 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1MD램을 개발한지 불과 4년만에 64MD램 개발에 성공한 것을 비롯, 차세대 반도체 256MD램 개발에 착수하는 등 현대는 세계반도체산업과 정보통신 산업에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86년 국내 최초로 미국 자동차 시장에 진출한 이래, 세계시장의 호평을 받은 현대는 순수 우리 기술로 첨단 미래형 스포츠카인 HCD-II를 개발, 미래의 자동차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21세기산업을 주도할 정밀화학, 고분자 신소재분야 수요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 육성하고 있는 정유·화학부문의 대단위 공장을 건립, 현대는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생산하여 보다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미래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소음과 공해가 없는 미래의 대중교통 수단인 자기부상열차를 개발, 이번 대전 엑스포에 운행함으로써 세계에 우리 기술의 진수를 선보였습니다.

20여년 동안 세계의 선도적 조선업체로서, 세계 최대의 유조선을 비롯하여 530여척의 선박을 건조한 기술을 바탕으로 현대는 최근 선박 기술의 꽃이라 불리는 LNG선을 건조하여 그 명성과 기술력을 다시 한번 과시했습니다.

첨단반도체에서 LNG선까지 - 현대는 품질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해서 보디나온 미래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 現代

사립학교법 개정논의와 전망

# 국회회기내 개정 어려울듯

## 교육공대위·민주당, '교수회의 인정'안 상정 계획 민자당, "법인회포 운용상 문제일뿐 법 하자없다"

최고법인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보장(3조 제4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대학의 자치'가 헌법상 보장되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학부연구 및 교육의 자유와 이를 위한 대학의 자율운영 및 대학교원의 신분보장이 하위법에 의해 구체화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법의 근간인 '자치'는 대학관계 교육법들중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의 개정·시행으로 인해 대학사회가 엄청난 자기모순에 빠지게 됨으로써 오도된 명제로 남고 말았다.

그렇듯 '대학자치'의 개념을 양산한 사립학교법은 유신정권에 의해 교수임용제에 정치적 탄압의 수단

으로 이용됨으로써 그 불행의 출발을 시작하였다.

이후 지난 8년 5공정권 출범 당시 대개정을 통해 교원임면권과 재정권이 학교장에게 이양되고 학교의 주별체제운영이 금지되어 부분적 치유가 되는 듯 하였으나 다시 90년 3월 6공정권하의 개정에서는 81년 이전으로 회귀함으로써 대학 자치의 개념은 한층 오도 되기 시작했다.

### 사립학교법의 '개악성'

사립학교법의 '개악성'은 법조항 곳곳에서 나타나며 대구대분규를 비롯한 많은 사립대학의 진통을 양산하고 있다.

이같은 폐단은 현행 사립학교법이 철저히 보장하고 있는 법인에로의 운영권 집중에 그 원인이 있다. 법은 학교운영에 있어 핵심인 재

정권(예·결산권, 처분권, 수익사업권)을 모두 법인이사회에 일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임법권(정문필학적 제·개정권)과 인사권(총·학장 임면권·징계권)등을 부여해 무소불위의 법인을 인정해주고 있으며 교수와 학생은 학교운영과정에서 완전히 배제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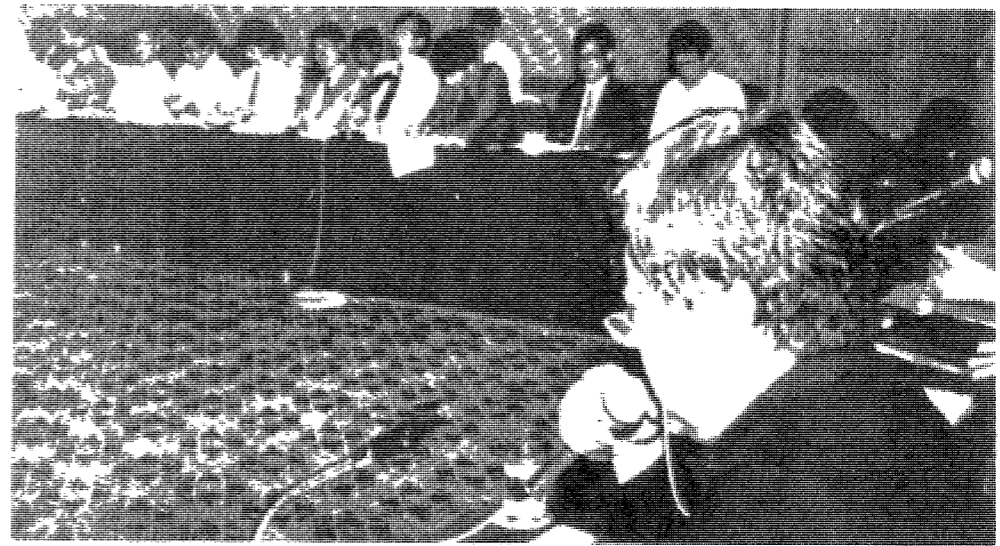
이같은 내용을 담고있는 독소조항을 간단히 살펴보면 법인은 총·학장 임면권을 아무런 사전절차 없이 직접행할 수 있도록(제53조)되어 있고 교수임면권·권한을 가지며 다만 법인정관으로 총·학장을 위임할 수 있다(제53조 제4항과 2항)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사학재단 내지 재단이사장의 비교육적 발상의 권한남용의 여지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 부정부패 사건과 같은 부작용을 연재되지 유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앞서 지적한 교원에 관한 법인의 침해가능성조항외에도 법인이사회 구성에 있어 대학교육의 전문성과 사명감을 고려하지 않은 이사자격(제22조)규정이나 명확한 기준이 명시되어있지 않은 법인의 학교재정기여 부분에 대한 간과는 법인의 기본적 역할 수행의 문제를 기본조차 하지않음으로써 개정 당시 학교법인들의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립학교법의 문제는 결국 이 법에 의해 대학과 교수가 사학자본에 예속된 사유불이나 피고용자로 전락할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으며 그만큼 개정은 한시라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

### 각단체의 개정움직임

최근 정기국회는 국정감사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각 상임위



○교육공대위와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개정안 마련에 힘써왔다.

원회를 정상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상정도 10월중순에나 가야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 민주당내에서는 최종개정안을 곧 마련할 예정이며 교육공대위 소속 민주당의원들이 '사립학교법'의 올바른 개정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기본골자만을 준비한 상태다.

이 개정안 기본골자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크게 두가지로 법인 수익재산의 학교재정기여 폭 확대규정 신설과 총·학장 및 교원 임면 권한을 교수회의와 교무회의, 법인의 3자가 갖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구화를 명문화하고 있다. 또한 현행 법인이사회의 권한인 교원임면권을 학교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학교장이 임면권을 이행하도록 하는 변경안을 마련했다.

이같은 개정안은 민주당 정치관계법특별위에서 1차심사중이며 당무위원회를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초안을 마련한 국회교육위원회 김원웅(민주당) 의원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립대학 총체적 문제를 푸러인 사립학교법의 개정용 회기안에 해결하겠다"고 밝히며 민주당의 강경한 개정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그동안 꾸준히 사립학교법의 개정추진과 개정방향을 제시해 온 교육공대위(전국 국공립·사립교수협의회, 민교협, 해직교수협의회 연합단체)는 정기국회 개정안 상정을 목표로 지난달 30일 민주당의원들과 간담회를 갖는등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민주당 개정안에 의견 제언을 보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몇가지 사항에서 공대위는 민주당과 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대단 전횡을 막기위한 교수회의의 법적 인정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총·학장 임면에 있어 교

수회의 추천이후 학교법인이 임명한다는 안을 들고 민주당의 여러 다른 법인이 임명한다는 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같은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주요골자는 양쪽이 비슷한 개정안을 보이고 있어 철저히 큰 무리는 없을 듯하다.

### 정기국회 개정전망

이렇듯 각 단체·정당들이 사립학교법 개정안 상정을 놓고 연구·결론 작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으나 정작 문민정부출범당시 사립학교법개정검토를 강력히 시사한 민자당은 초기에는 한국사립대학총연합회의회측에 자문을 구하는등 연구작업을 펼치다 국회회기에 접어들며 개정안마련을 폐기함으로써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개정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민자당은 사립대학 법인의 전횡은 운용상의 문제일뿐 법자체의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으며 교육위원회 안전장정조차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민자당의 움직임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사립학교법 개정을 하려는 데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박수로 기자)

## 환경문제 4. 층은-국민의식과 기업의식

최근 신경제5개년계획이 수립되어 지상에 공표되었다. 이중 환경부분 관련은 본 많은 환경부분 관계자들은 실망을 금치 못했다. 한마디로 경제가 나쁘니 환경은 조금 뒤에 보자는 식의 논리를 보여 환경에 관하여는 다시금 옛날로 돌아간 느낌을 지울수 없었다. 흔히 이야기 하듯 우리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은 많은 밤비처럼 쉽게 달아올랐다 쉽게 식어버린 격이 아닐 수 없다. 아마도 그렇게 요란하고 거창했던 적금의 환경의식은 유행병이었거나 거품에 불과하였다고 밖에는 할수 없다.

공공의 자산이며 다음세대의 자산이기도 한 환경은 화폐적 가치가 있는것도 아니고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소유가 한정되어 있지 않아 우리 모두가 환경보호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할때는 쉽사리 방지되어 훼손되기 쉽다. 따라서 환경보호의식을 통한 환경자원에 대한 가치부여만이 환경보전을 이루는 지름길임을 잊어서는 않되겠다.

그렇다면 우리의 환경보전의식은 왜 그렇게 취약한 것인가에 대한 냉정한 반성이 있어야 하겠다. 단순히 쉽게 동화되고 분위기에 휩쓸리기 좋아하는 우리대 정서로만 그 뜻을 돌리기 보다는 어떠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평가가 필요하다. 많은 이유가 있었으나 우선적으로 꼽고 싶은것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리는 제도적 여건이 아직도 취약하다고 생각한다. 기초적인 이야기라 되겠지만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인식이 형성될리 만무하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 질때 올바른 환경의식이 형성될 수 있다고 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환경의식이란 문제의 인식과 이를 수정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양식 까지를 포함한다고 볼수 있다.

이렇듯 문제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 두가지 부분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가 감시기능이다.

환경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그 이행상태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사회적 역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지역단위의 민간환경운동단체의 역할을 통해 환경오염에 대한 모니터링이 효과적일수 있겠다. 그 이유는 오염의 피해를 직접 겪어야 하는 측이 가장 지속적이며 활발한 감시기능을 수행할 것이고 또 그 결과의 신빙성도 가장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전적으로 민간단체의 활동에 의존해서 문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지는 않는다. 민간단체가 하나의 워치독(Watchdog) 역할을 함으로써 공공부분의 모니터링 노력을 촉진 시키고 보다 객관적이며 광범위한 노력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환경운동단체의 이러한 기능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지원 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환경정보에 대한 공개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민

## '거품 환경 의식' 문제 지속적 감시 이뤄져야



◇ 쉽게 달아올랐다 쉽게 식어버리는 환경보전의식은 환경이 방치되어 훼손되게 하는 원인제공을 한다.

간환경운동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꾀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필요한 부분이 전달매체인 언론의 역할이다.

어느 분야도 마찬가지로 이렇지만 언론의 의식형성에 미치는 효과는 지대하다.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어떠한 시각으로 어떠한 메시지를 대안으로 내놓는지가 중요하다. 최근 애플이 언론사들이 환경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과연 높은 열기가 얼마나 내용에 충실했는지 생 각 해볼 여지가 있다.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는건지 독자가 환경에 대해 확보키 위해 환경문제를 다루고자 하는지 혼란스럽다. 물론 언론매체의 주요관심은 많은 독자의 확보일 것이다. 그러나 환경문제를 해결키

위해서 언론은 그 이상의 시대적 의무를 다하도록 자극 받아야 할 것이다.

보다 심층적이고 문제 해결적인 언론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체제도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 예로 현대 사회부기자중심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를 시정키 위하여는 경제·정치·과학등 여러분야의 도움아래 환경보도가 이루어질수 있는 제도의 구상이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제기와 아울러 대안의 제시를 통해 올바른 국민대기업의 환경의식은 형성될 것이다.

곽 일 천 (한국환경기술개발원 연구원)

## 동막로

"도시락 드시고 가세요 얼마 안남았어요. 빨리와서 드세요." "이렇게가는 도시락의 맛을 느껴보세요."

이파대 가을 학생들 '동리 한마당'이 한창이던 지난 16일 과학관 앞 마당에서는 예년의 단과대학 축제에선 볼수 없었던 화기연행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한쪽에선 도시락을 나눠주고 있었고 학생들은 군데군데 모여 앉아 즐거운 표정으로 도시락을 먹고 있었다.

드넓은 가을하늘아래 삼삼오오 짝을 지어 도시락을 나눠먹는 열광적인 웃음이 가시질 않았다.

비록 집에서 정만해온 도시락은 아니었지만 같이앉아 먹는 도시락의 맛은 그야말로 꿀맛이었을 것이다.

"중·고등학교 다닐때 가을소풍이리도 온것같은 느낌이에요."라며 한 학생은 말한다.

또 한학생은 이렇게 말한다. "과 친구들과 한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먹으니까 식당에서 먹는 밥보다 훨씬 더 맛있는것 같아요."

## 도시락



이 행사를 기획한 김태웅(통계4) 이파대학생회장은 "잊혀져가는 도시락의 향수를 느껴보고 과 친구들과 앉아 이야기 나누는 것이 좋은 공감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

에서 시도했는데 이렇게 호응이 클줄은 몰랐다"고 밝힌다.

도시락이 모자라 미처 나눠주지 못한 학생들이 있을 정도로 큰 반응을 얻은 이번 행사는 예년 단과대학의 '보여주기식' 행사를 탈피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대중참여의 공간을 만들고 있었다.

요즘 단과대학 학생들은 학습체의 성격을 벗어나 체육행사, 문화공연, 사진전등 학생들의 대중참여 공간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 때문인지 학습체의 이들도 동리한마당, 명진 문화한마당, 남산골 한마당등으로 예년의 원만일탈적인 00대 학습문화제를 탈피하고 있다.

학습체가 단과대학의 종합적 축제형태로 변화하면서 대중참여의 공간을 확보하려는 노력들이 돋보였던 행사가 바로 '도시락' 먹기행사가 아니었나 싶다.

기회하나라에 까지 학생들에 근거하려는 생각들이 변화하는 학생, 변화하는 학습체의 성격을 파우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석종 기자)

## "포니 신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976년 국산차 수출 1호인 에코도르에 상환한 5대의 포니. 18년간 약 90만대를 팔았으나 아무런 결함없이 운행되고 있다. (1993년 4월 22일, 에코도르 수도 케노 예시)

중남미지역수출팀장 이정태

생각해보면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우리 손 우리 기술로 최초의 국산모델「포니」를 만들고 난후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밤낮없이 뛰었지만 우리 차의 기술력과 품질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때였어서 코비코비마 밖에 부딪치고는 했습니다.

그런 시절 국산차 수출 1호로 에코도르에 처녀수출했던 다섯대의 포니 - 지금 18년을 뛰고도 끄덕없이 달리고 있는 그「포니」는 다름아닌 오늘 세계 160여개국에 250만대 이상을 수출하게된 품질력과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때 못나기 사원이었던 제가 어느덧 포니의 연륜만큼이나 고참사원이 된 지금, 또다시 새롭게 수출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비행기 트랩을 오를 후배들에게 이런 격려의 말을 해주려 합니다.

"포니신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 권력구조 모순...종단 고질병

## 한국불교의 과제와 전망

글쓴이 순서

1. 한국불교, 무엇이 문제인가
2. 근·현대 불교탄압사
3. 불교관계 악법
4. 종단개혁

지금 우리 불교는 매우 중대한 역사의 기로에 서 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조계종단은 그동안 계속되어 온 비민주적인 종단운영과 민주주의의 종단개혁을 위해 민족사에서 도태되어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구시대의 질서를 반영하는 각급의 교단제도에서 기인한다. 제철이 바뀌면 옷을 바꾸어 입어야 한다. 교단의 개혁은 고질병에 걸려 운신하지 못하는 구질서를 척결하여 새롭고 창의적인 제도로 마땅히 변화된 현실 사회를 역동적으로 향도할 주체적인 불교를 바로 세우기 위한 지난한 여정이다. 전종도가 합의하고 이끌어내는 교단제도가 아니고 종권을 장악한 소수의 집단에 의해 종단이 광학적으로 운영되는 각급의 종단개혁운동은 시대적 당위성이 아니라 기회 살안기 위한 생존 전략의 성격에 불과하다.

종단개혁의 가장 시급한 사업은 낡은 제도의 청산과 인적정화, 삼보정체의 공개운영 원용실현 체계의 수립이라 할 수 있다. 첫째, 낡은 제도의 청산은 시대적 당위이다. 이는사회와 조적이 되었던 부패와 혼란을 초래하는것은 반드시 제도와 법이 시대에 맞지 않는에서 출발한다. 우리교단의 가장 큰 병폐는 일부 소수의 정치 승려가 총무원을 비롯한 중회의원, 본사등의 소임을 독식하는데 있다. 종단개혁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과제는 권력구조를 막는 제도신설에서, 그 빗장을 풀어야 한다. 권력구조가 없어진다면 종단의 유능한 인재들이 종단발전에서 기여할 수 있는 폭이 상대적으로 넓어지며 많은 바직책을 소신있고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모든것은 종단개혁이라는 대명제에 이루어질 때 우리 종단은 건강해질 수 있으며 만이 하나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소수 몇사람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함정을 결코 용인해서는 안될 것이다. 종단이 울곧게 바로 설 때 조계종 중립학교의 대표적인 동국대학의 미래 또한 밝아진다. 현재 국회의원 조계종 중앙총회내에 동대석의 요구로 중립학교위원회(위원장=설소남)가 구성되어 종립학교를 발전시키는 데만 마련에 들어갔다. 위원회의 구성은 그들 스스로 구성한 것이라기 보다는 동국구성원과 석림회원들의 학자들에 대한 성과물이다. 앞으로 그들이 건강히 대안을 만들어 내기까지는 확신지주의 대안이 더욱 굳건하게 갖추어져 큰 목소리로 그들에게 요구될 때 가능한 일이다.

종단의 개혁은 시대의 당위이며, 교단과 동대가 바로이기 위해서는 개혁의 힘, 학자주의 대안이 굳건할 때 우리가 일구고자 하는 종단개혁과 학교발전은 이룰 수 있는 지혜를 갖자.

다. 모든것은 종단개혁이라는 대명제에 이루어질 때 우리 종단은 건강해질 수 있으며 만이 하나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소수 몇사람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함정을 결코 용인해서는 안될 것이다. 종단이 울곧게 바로 설 때 조계종 중립학교의 대표적인 동국대학의 미래 또한 밝아진다. 현재 국회의원 조계종 중앙총회내에 동대석의 요구로 중립학교위원회(위원장=설소남)가 구성되어 종립학교를 발전시키는 데만 마련에 들어갔다. 위원회의 구성은 그들 스스로 구성한 것이라기 보다는 동국구성원과 석림회원들의 학자들에 대한 성과물이다. 앞으로 그들이 건강히 대안을 만들어 내기까지는 확신지주의 대안이 더욱 굳건하게 갖추어져 큰 목소리로 그들에게 요구될 때 가능한 일이다.

다. 모든것은 종단개혁이라는 대명제에 이루어질 때 우리 종단은 건강해질 수 있으며 만이 하나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소수 몇사람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함정을 결코 용인해서는 안될 것이다. 종단이 울곧게 바로 설 때 조계종 중립학교의 대표적인 동국대학의 미래 또한 밝아진다. 현재 국회의원 조계종 중앙총회내에 동대석의 요구로 중립학교위원회(위원장=설소남)가 구성되어 종립학교를 발전시키는 데만 마련에 들어갔다. 위원회의 구성은 그들 스스로 구성한 것이라기 보다는 동국구성원과 석림회원들의 학자들에 대한 성과물이다. 앞으로 그들이 건강히 대안을 만들어 내기까지는 확신지주의 대안이 더욱 굳건하게 갖추어져 큰 목소리로 그들에게 요구될 때 가능한 일이다.

다. 모든것은 종단개혁이라는 대명제에 이루어질 때 우리 종단은 건강해질 수 있으며 만이 하나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소수 몇사람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함정을 결코 용인해서는 안될 것이다. 종단이 울곧게 바로 설 때 조계종 중립학교의 대표적인 동국대학의 미래 또한 밝아진다. 현재 국회의원 조계종 중앙총회내에 동대석의 요구로 중립학교위원회(위원장=설소남)가 구성되어 종립학교를 발전시키는 데만 마련에 들어갔다. 위원회의 구성은 그들 스스로 구성한 것이라기 보다는 동국구성원과 석림회원들의 학자들에 대한 성과물이다. 앞으로 그들이 건강히 대안을 만들어 내기까지는 확신지주의 대안이 더욱 굳건하게 갖추어져 큰 목소리로 그들에게 요구될 때 가능한 일이다.

다. 모든것은 종단개혁이라는 대명제에 이루어질 때 우리 종단은 건강해질 수 있으며 만이 하나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소수 몇사람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함정을 결코 용인해서는 안될 것이다. 종단이 울곧게 바로 설 때 조계종 중립학교의 대표적인 동국대학의 미래 또한 밝아진다. 현재 국회의원 조계종 중앙총회내에 동대석의 요구로 중립학교위원회(위원장=설소남)가 구성되어 종립학교를 발전시키는 데만 마련에 들어갔다. 위원회의 구성은 그들 스스로 구성한 것이라기 보다는 동국구성원과 석림회원들의 학자들에 대한 성과물이다. 앞으로 그들이 건강히 대안을 만들어 내기까지는 확신지주의 대안이 더욱 굳건하게 갖추어져 큰 목소리로 그들에게 요구될 때 가능한 일이다.



△ 조계종의 재산공개 청문회. 조계종 중앙총회에서는 종단개혁의 시대를 당위로 반영하였다기보다는 정부의 개혁흐름을 따라 종단인사들의 입지강화책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 등문투고 언론사 취업준비 전략

평소 매스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이 분야에 진출하려는 여러분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가지 조언하고자 한다. 잘 알다시피 매스컴은 정보화시대와 더불어 그 비중이 날로 커짐에 따라 한변쯤 도전해보고 싶은 직종으로 꼽히고 있다. 최근 장래 갖고 싶은 직업에 관한 조사를 보거나, 또 매년 실시되고 있는 매스컴사 입사시험의 경쟁률을 살펴보면 매력에 있는 분야임에 틀림없다.

우선 매스컴사에 진출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에게 금년처럼 좋은 조건은 흔치 않은 것 같다. 이미 지상에 보도된대로 금년에 CATV만

## CATV신설...인력수요증가

### "기자직만 고집말라"

#### 전직가능한 PD·행정직지원 무방

2개 프로그램 공급업자가 선정되었으며, 57개 지역에 방송국이 허가될 예정으로 있어 그만큼 인력 수요가 많아 진다는 이야기이다. 더욱이 금년에 종교방송의 지방방송국도 4개가 허가된 상태이다. 이렇게 불매이 분야에 필요로 하는 신규인원은 5만여명 정도에 이르러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한다고 해도 입사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 취업준비와 그 전략이다. 첫째, 매스컴은 일반회사와는 약간 다른 시각을 필요로 한다. 즉 사물을 개관화시키는 안목과 매거니즘 용어 숙지, 정확한 언어 구사력, 많은 상식, 적극적인 성격 등이 그렇다. 그리고 PC의 대중화에 따른 준비비는 건강과 민첩성, 외모 등이 면접에 큰 비중이 있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경우는 학교의 취업부서나 해당사에 제직하고 있는 선배를 만나 상담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보도-취재 기자직만 고집하지 말라는 것이다. 꼭 입사하고 싶다면 자신력을 강구할 수

공무원장식의 사찰개산공사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왜냐하면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 전국 의 큰 사찰은 이미 공개(문화부에 매년 공개)되고 있으며 또한 신내로부터 물러받은 부동산을 돈으로 환산하여 공개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겠는가? 문제는 신도들의 보시금이 사찰과 교단을 위해 생산적으로 쓰여져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재정에 대한 운영과 집행에 주지한 사람만이 독점적으로 인해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왔기에 이 범행은 원용실현체제를 확립하여 그 빗장을 풀어야 한다는 것이

다. 모든것은 종단개혁이라는 대명제에 이루어질 때 우리 종단은 건강해질 수 있으며 만이 하나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소수 몇사람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함정을 결코 용인해서는 안될 것이다. 종단이 울곧게 바로 설 때 조계종 중립학교의 대표적인 동국대학의 미래 또한 밝아진다. 현재 국회의원 조계종 중앙총회내에 동대석의 요구로 중립학교위원회(위원장=설소남)가 구성되어 종립학교를 발전시키는 데만 마련에 들어갔다. 위원회의 구성은 그들 스스로 구성한 것이라기 보다는 동국구성원과 석림회원들의 학자들에 대한 성과물이다. 앞으로 그들이 건강히 대안을 만들어 내기까지는 확신지주의 대안이 더욱 굳건하게 갖추어져 큰 목소리로 그들에게 요구될 때 가능한 일이다.

다. 모든것은 종단개혁이라는 대명제에 이루어질 때 우리 종단은 건강해질 수 있으며 만이 하나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소수 몇사람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함정을 결코 용인해서는 안될 것이다. 종단이 울곧게 바로 설 때 조계종 중립학교의 대표적인 동국대학의 미래 또한 밝아진다. 현재 국회의원 조계종 중앙총회내에 동대석의 요구로 중립학교위원회(위원장=설소남)가 구성되어 종립학교를 발전시키는 데만 마련에 들어갔다. 위원회의 구성은 그들 스스로 구성한 것이라기 보다는 동국구성원과 석림회원들의 학자들에 대한 성과물이다. 앞으로 그들이 건강히 대안을 만들어 내기까지는 확신지주의 대안이 더욱 굳건하게 갖추어져 큰 목소리로 그들에게 요구될 때 가능한 일이다.

다. 모든것은 종단개혁이라는 대명제에 이루어질 때 우리 종단은 건강해질 수 있으며 만이 하나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소수 몇사람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함정을 결코 용인해서는 안될 것이다. 종단이 울곧게 바로 설 때 조계종 중립학교의 대표적인 동국대학의 미래 또한 밝아진다. 현재 국회의원 조계종 중앙총회내에 동대석의 요구로 중립학교위원회(위원장=설소남)가 구성되어 종립학교를 발전시키는 데만 마련에 들어갔다. 위원회의 구성은 그들 스스로 구성한 것이라기 보다는 동국구성원과 석림회원들의 학자들에 대한 성과물이다. 앞으로 그들이 건강히 대안을 만들어 내기까지는 확신지주의 대안이 더욱 굳건하게 갖추어져 큰 목소리로 그들에게 요구될 때 가능한 일이다.

다. 모든것은 종단개혁이라는 대명제에 이루어질 때 우리 종단은 건강해질 수 있으며 만이 하나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소수 몇사람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함정을 결코 용인해서는 안될 것이다. 종단이 울곧게 바로 설 때 조계종 중립학교의 대표적인 동국대학의 미래 또한 밝아진다. 현재 국회의원 조계종 중앙총회내에 동대석의 요구로 중립학교위원회(위원장=설소남)가 구성되어 종립학교를 발전시키는 데만 마련에 들어갔다. 위원회의 구성은 그들 스스로 구성한 것이라기 보다는 동국구성원과 석림회원들의 학자들에 대한 성과물이다. 앞으로 그들이 건강히 대안을 만들어 내기까지는 확신지주의 대안이 더욱 굳건하게 갖추어져 큰 목소리로 그들에게 요구될 때 가능한 일이다.

다. 모든것은 종단개혁이라는 대명제에 이루어질 때 우리 종단은 건강해질 수 있으며 만이 하나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소수 몇사람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함정을 결코 용인해서는 안될 것이다. 종단이 울곧게 바로 설 때 조계종 중립학교의 대표적인 동국대학의 미래 또한 밝아진다. 현재 국회의원 조계종 중앙총회내에 동대석의 요구로 중립학교위원회(위원장=설소남)가 구성되어 종립학교를 발전시키는 데만 마련에 들어갔다. 위원회의 구성은 그들 스스로 구성한 것이라기 보다는 동국구성원과 석림회원들의 학자들에 대한 성과물이다. 앞으로 그들이 건강히 대안을 만들어 내기까지는 확신지주의 대안이 더욱 굳건하게 갖추어져 큰 목소리로 그들에게 요구될 때 가능한 일이다.

## 단과대 학장에게 듣는다

### ①이부대 황정규학장

지난 3월 94년도 대학입학정원 조정결과 본교 이부대에 복원학과, 반도체공학과, 전산통계학과가 신설됐다. 지난해 신설된 정보관리학과에서도 나타나듯이 강의실과 실습실 부족으로 학생들의 불편의 소리가 높았는데 올해 또다시 아무런 대비책 없이 3개과를 신설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이부대학 황정규(경영학) 학장을 만나 대처 방안을 들어본다.

질문: 학과 신설로 인해 교수와 강의실이 필요한데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답: 학과 신설로 인해 교수와 강의실이 필요한데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질문: 학과 신설로 인해 교수와 강의실이 필요한데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답: 학과 신설로 인해 교수와 강의실이 필요한데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실은 경상대 컴퓨터실을 돌려 함께 공동사용하려 한다. -일부 시간에서는 학과실신이 정면으로 돌려 재원 확보도 수단으로 이용되는데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이와 같이 요인받지 않기 위한 총괄조각기입니다. -현재 학과실신 이후 학생회측에서는 학과실신과 관련하여 학생회실을 요구했다. 또한 학생회관 건립으로 예술대에서는 동국대

## "타단대 공간부족 인정하나 5층 열람실 전환 어려운 일"

5층 열람실을 강의실로 바꾸고 있다. 이는 열람실 공간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자체 가진물을 갖는 것이 학생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산상문제를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지며 공간부족이 학교건반에 누적된 문제이기 때문에 단과대 단위로 어떠한 문제의 해결점이나 대안을 찾는 것은 힘들다. 단지 이부대 학생들의 유일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된 열람실에 대한 공간인 수요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지난 봄부터 실시된 실업준비교육에 대한 의견은. -일반적으로 이부대학 설립취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지만, 이부대학은 학과와 산업을 인력양성을 위해서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산업체 특별채용실시는 바람직한 일이다. 또한 산업체 학생의 입학성적이 낮으면 입학사정관 성적은 좋게 나타나며 좋은 인력양성을 조성하여 내년에 특별채용을 40%로 높일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당부 하고 싶은 말씀은. -지금 공간부족의 심각성이 인식되지만, 지난해 집단이거주의 때처럼 말고 좀더 신중한 자세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현실적 해결점을 모색하기 바란다. 또한 현실감있는 자세로 각자의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기대한다.

## 한 의과대학의 현사태에 대한 우리의 견해

인류의 복지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각 전공 분야에서 학업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대학이 사회적 문제로 가장 기본적인 정상적 학업이 좌초에 이르고, 급기야 학생들의 집단 유급과 한의과 교수들이 사표를 제출하게 된 현실에 대하여 우리 교수 일동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학생들의 집단 유급상태는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수, 학교 당국, 정부 및 사회단체, 특히 내년 한의대 지방 신입생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한의대 구성원 뿐만 아니라 정부 당국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 교수 일동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한다.

1. 정부 당국은 근원적이며 원칙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의 지를 가질 것을 촉구하며, 행정의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교육과 관련된 사회여건이 더이상 혼돈의 상태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2. 교육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교육부 장관에게 드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제시한 내용인 '학칙의 포괄적 운용'으로 94년 2월까지 학사일정을 연장하여 교수직을 길고 수업하기로 하겠다"는 한의과 대학 교수들의 의견을 지지하며 교육부에서 이 방안이 적극 수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3.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지속됨은 국가나 대학의 장래에 바람직스럽지 못하므로 한의과대학 교수들은 사표를 철회하고 학생들은 수업에 복귀하여, 수업 정상화를 통해 지금까지의 교육 차질을 만회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 교수 신간안내

일본학자들이 한국 법제를 연구·소개 한 일본서적이 눈에 띄는데 반하여, 한국 학자가 쓴 일본 독자 를 상대로 한 책이 거의 없다시피했다. 이번에 일본 중앙대학 비교법연구소와 한양법 연구가 한국학 학자를 대표하여 공동연구로 펴낸 책은 그 내용이나 기획 자체가 뛰어나서 신간임을 더해준다. 원래 이 책은 한국의 법문화와 관련한 법제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권으로 기획되었다. 이번에 상권에 이어 하반기에 출간될 예정이다. 이 책의 내용은 한국학 학자가 한국의 법제를 비판적으로 요약·해설하며 그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지적하고 그에 더하여 각 권마다 일본학자들의 비평이 실려있다. 순서대로 주제를 보면 한국의 법문화(헌법), 한국의 사법제도(호헌법), 헌법·헌법 정치와 입헌민주주의의 과제(헌법), 한국에서의 법치행정의 원리, 지방자치법, 경찰행정법(이규우), 국제법-한국의 국제법학의 현재와 미래(이정희), 한국의 형법-한국형법과 일본형법(박성기), 한국의 형사소송법의 연혁과 특색(백영희)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 책은 한국법제가 일본법제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학자나 일본법학자 일본법제의 제반 정도로도 알기 쉽거나 식민지시대의 편견으로 비하하지 보기가 쉬운 선입관념을 씻어 주는데 도움이 되고 우리 독자에게는 우리 법제의 현주소를 우리와 일본 학자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대강을 시켜 살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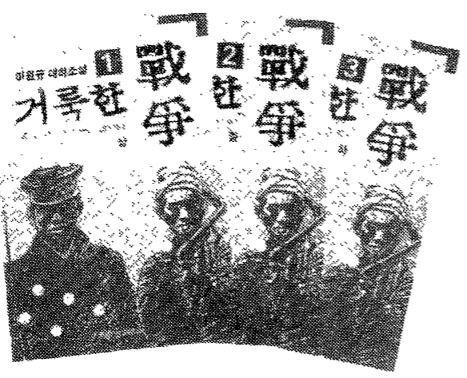
인 헌법평의회는 헌법에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책(프랑스 헌법소송론)은 프랑스 헌법제도의 역사와 현 헌법소송기관인 헌법평의회가 어떻게 조직되어 있으며 어떠한 권한으로 어떻게 프랑스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지를 분석 연구하고 있다. 또한 부록으로써 프랑스 헌법헌법에 있어서 헌법적 효력을 인정받고 있는 헌법규범(Mestrich 조약)인 1992년 6월25일의 헌법개정(헌법)과 헌법평의회조직법, 이에 관한 법규범의 불이행, 제소장의 9개 헌법평의회 의 중요 判決(원문)등을 삽입하고 있어 프랑스 헌법소송에 관련된 내용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 동국대학교 교수회

◇ 동학의 새책 이원규 '거룩한 전쟁'

# 물허버린 '무명영웅' 발굴

## 실증된 민족정기회복 힘써 표지그림-분문삽화로 생동감취



역사소설 조선후기 한의사 허준이라는 실존인물을 통해 역사를 재조명한 90년초 '소설 등의보급'을 이 후 인물중심의 역사소설이 출판계에 붐을 일으켰다. 인물중심에서 사건 중심으로 초점을 맞춘 역사소설이 본교 동문작가인 이원규 씨의 노력으로 인들과 역사가 오차없이 어울려 펼쳐졌다.

'거룩한 전쟁' 이원규씨가 "발로 써야한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침묵하는 역사속으로 뛰어들어 그린 뛰어난 의병 투쟁사의 기록이다.

본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한 이원규씨는 젊은 시절부터 메디트와 피츠제럴드의 '소설작

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역사속으로 그물을 던졌다. 지난 6월 30일 출판된 '거룩한 전쟁' 제1부 '누가 이명애가 사'가 없다 하라상편에는 문경의 이강년이 의병을 일으켜 전투를 전개하고 유인석과 함께 시간대로 후퇴하는 과정, 만주 유민의 고난이 다루어져 있다.

이 책에서는 만주지역에 뿌리를 내린 유민의 실재, 간도 의병대의 조직과정, 억압받던 의병들의 활동상황들이 그려져 있다.

하권은 군대해산, 신록식-김수민등의 평민 의병장 전투장면, 기세가 꺾인 의병들이 다시 일어서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다. 동학운동이 일어난 경북문경을 제1부의 무대로 삼아 이 지방의 양반-천민문화와 방언-민요까지 다룬 '거룩한 전쟁'은 제2부에서 암투쟁을 건너 간도, 연해주에 자리잡아 두번의 의병전쟁을 그려나갈 예정이다.

지난 8월초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와 블라디보스톡을 찾은 이원규씨는 고종황제의 명으로 작성한 '아국여지도'를 이용하기도 하며 제4부 12권으로 오는 95년(광복 50주년)에 완간될 '거룩한 전쟁' 제2부 집필을 준비하고 있다.

역사소설이라 해도 공간적 배경이 협소한 한국소설의 한

## 공간 협소한 한국소설 한계 넘어 소백산부터 중국이은 '발로 쓴 글'

법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자신이 무엇을 써야하는지를 정해놓고 글쓰기에 임해야 한다는 이들의 이론에 따라 815 해방이 승전국의 전리품으로 차부되어 퇴색해버린 독립전쟁의 자취를 편견없이 증언하여, 실증되어야 하는 민족정기의 본류와 자국을 회복해야 한다고 책상에 써 붙여놓은 이글을 작업했다.

경제발전이 내신 할수없는 '조국'과 '민족'에 대한 아열수 없는 내면의 열매감, 이것을 진정한 해방을 쟁취하지 못하고 독립을 안지 못하는 원인이 라 파악한 이원규는 우리의 독립전쟁이 열매감을 가져다 줄 정도로 실재한 전쟁이 아니라 치열한 항쟁과 승리였다. 이시대의 역사가 패배와 굴종

'거룩한 전쟁'을 집필하기 위해 이원규씨는 나침반과 지도를 안내자 삼아 소백산을 중심으로 의병대의 격전지뿐만 아니라 중국의 상해, 북경, 천진등을 취재했다고 한다.

날카로운 독자가 아니면 볼수없는 부분에 이원규씨는 그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홍정선(평민가)씨는 내미산과 문수봉을 거쳐 동로로 가는 길이라던 자신이 있었다는 것이 소산 구절에서 작가의 치밀한 고증정신을 볼수 있다고 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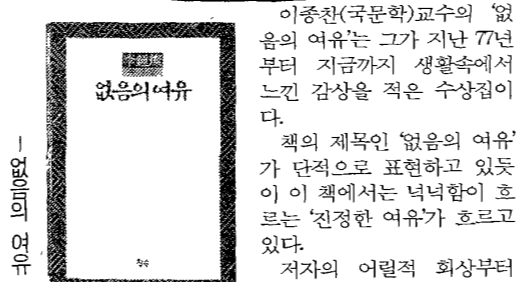
'거룩한 전쟁'의 특징이라면 유인석, 이강년, 김덕재, 신록식, 이범윤등의 명성있는 실존인물이 등장하고 이형재, 노광, 마금동등의 작가가 강조한 인물들이 많은 역할을 하여 소설

계를 저우고자 넓은 중국대륙과 러시아를 찾은 2백명이라는 숫자의 인물을 등장시킨 거룩한 전쟁'에는 기획-제작에 직접 참여한 화가 김찬동씨의 표지그림과 본문삽화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더한다.

물허버린 무명영웅들의 목소리를 어깨에 지고 이명의 골짜기에 한조각 뼈로 남아있는 그들을 햇빛속에 세워야 할 역사가 대한 책임으로 글을 쓰고 있는 이원규. 그는 우리, 무명영웅들의 후손에게 묻는다.

"조국을 위해 싸우다 죽어간 무명의 병들의 고조를 아는가, 독립군을 후원하다가 참혹하게 죽은 간도동포들의 회생을 아는가, 우리의 역사에서마저 삭제된 이들의 한을 아는가" (理)

### 조형 화제의 신간



이종찬(국문학)교수의 '없음의 여유'는 그가 지난 77년부터 지금까지 생활속에서 느낀 감상을 적은 수필집이다.

책의 제목인 '없음의 여유'가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듯이 이 책에서는 낙담함이 흐르는 '진정한 여유'가 흐르고 있다.

저자의 어릴적 회상부터 교단에서 느끼는 단상까지 그는 담담하게 이야기들을 수놓으며 현대인사화에 자그만 파장이 일기를 기다린다. 그리고 삶의 여유를 '있음'에서 주는 낙담함이 아닌 '없음'에서 남기는 낙담함을 이룬다.

그는 이러한 사색을 맹자, 소학의 고전과 함께 전함으로써 풍경소리처럼 온온하게 읽는 이들에게 삶을 꺼내 보인다. 한문학연구의 외연을 넓어온 이교수에게 그의 열정은 이 책의 한시인용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본교 국문과 강사로 있는 송희복씨의 문학평론집이다. 이번 평론집은 그가 10년만에 처음 내놓는 평론집이기도 하다. 지난해 본교 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저자는 83년 경향신문 신춘문예 문학평론 부문에 입상했으며 제1회 민해문학상 수상이기도 하다.

그런 그가 이제야 자신의 평론집을 출판하게 된 것에 대해 스스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 "평단의 말세에도 자리할 수 없었던 나는 겨우 10년만에 첫 평론집을 내놓는다. 다소 시선(時線)을 놓친감이 없지 않아서인지 약간은 속스럽다"

이 책의 대부분의 작품들은 그가 이미 80년대에 발표한 것들은 스스로의 특성에 맞는 기준에 따라 선별한 것이다. 구성은 문학비평에 대한 개념들을 정리한 '비평개론'과 고령가요와 월인천강지곡 등으로부터 전환기시대의 시에 이르는 한국 시의 정신세계를 탐구한 '한국시사의 언저리', 그리고 민중문학의 리얼리즘, 제3세계 문학들을 다루고 있는 '요람기의 단상'까지 3부로 나뉘어 구성돼 있다.

이것을 수 없는 한편의 책 유가의 경전 '맹자'

삶의 지표 제시한 철학서 탐독 진정한 민주주의 의미 음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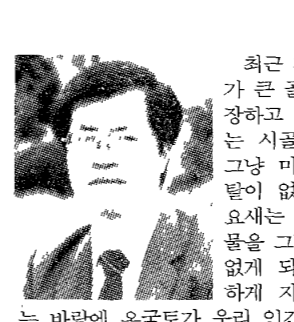
충동원할 수 밖에 없는 것이요 그가 축적한 시간의 비량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다. 독자는 저자의 이러한 평생의 정력을 단 몇 시간이나 며칠 사이에 섭취하는 것이나, 우리의 삶 속에서 독서의 행위가 바로 가장 귀한 일이다.

권하고 싶은 책이 있는가 또는 무슨 책인가 하는 질문에는 그 대답의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 사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식견이나 정서에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편차의 의식하면서 권한다면 삶의 지표에 보다 접근하는 철학이나 종교적 내용이 담긴 책일 수밖에 없으리라. (물론 이것도 필자의 편견이 되겠지만)

어쨌든 공부를 시작하면서 접한 것이 유가의 경전이었다. 사서오경에 속하는 것이나 맹자를 배우면서 의무적으로 외우기도 하였지만 뜻은 몰랐다. 내용도 모르고 독서하는 것을

이종찬 (문과대 국문과 교수)

## 성장과 환경 권오철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최근 환경오염문제가 큰 골치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옛날에는 시골의 개울물을 그냥 마셔도 아무런 일이 없었다. 그런데 요즘에는 시골의 개울물을 그냥 마실 수가 없게 되었다. 무차별하게 자연을 훼손하는 바람에 은근코도 우리 인간에게 유해한 물질로 오염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요즘은 수돗물도 마음놓고 마시기 어려워지고 있는 형편이다. 그렇다면? 대도시에서는 더러운 공기가 오염되어 숨이 막힐 지경이다. 서울시내를 걸어나다 보면 손수건으로 코를 막고 다니는 사람들을 가끔씩 볼 수 있다. 서울시내의 공기가 나쁘기 때문에 예민한 사람들은 손수건으로 코를 막고 다닐 지경으로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 인간들이 가장 신경써야 할 분야가 바로 환경오염문제인 것이다. 환경오염문제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까지 오고야 말았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각 언론기관에서도 환경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세계의 각국들도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고 얼마전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세계환경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다.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우리가 쾌적한 자연환경속에서 살기위해서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지난날 경제성장의 욕심을 버리지 않는다면 환경오염 문제는 갈수록 더욱 더 심각해 질 것이다.

우리 인간들의 성장욕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경제성장과 개발을 강조한 나머지 산을 뜯고 상수원부근까지 공장과 각종 위탁 시설을 지어대는 한 환경보호는 하나의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다. 상수원부근에서 수많은 공장들이 공장폐수를 마구 버린다면 상수원은 오염되고 우리들은 우리의 몸에 유해한 물질까지도 흡수하게 되는 것이다.

욕심을 버리고 적정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말로는 환경보호를 외치면서 산을 뜯고 개울 물을 건넌다면 결국 우리들은 더러운 물과 시꺼먼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야만 할 것이다. 우리의 몸에 해로운 물을 마시며 시꺼먼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는 경제성장을 하고 소득수준이 높아진다면 그것이 행복한 삶이겠는가? 그렇다면 경제성장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

경제성장을 하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적정성장정책을 추구하는 것이다.

고전학과 경제학자인 밀(J.S-Mill)은 영(O)의 경제성장론을 주장하였다. 최근 갈브레이스(K-Galbraith)도 영(O)의 경제성장론을 주장한 바 있다.

이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도 환경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1970년 로마에서 과학자, 경제학자, 교육자들이 모여서 로마클럽을 구성하고 역시 영(O)의 경제성장론과 비슷한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우리인간들의 욕심을 버리고 적정성장 정책으로 환경을 조화시킬 때 인류의 복지는 향상될 수 있는 것이다.

이종찬 (문과대 국문과 교수)

### 문화단신 새로 나온 책

- ◇애 풀집인가...서비스와 근로자의 직무만족도를 동시에 극대화시켜 기업의 수익성을 올리는 차원으로까지 끌어올린 울리엄슨의 지도서이다. (한국생산성본부 5천3백원)
- ◇매스컴과 친구하기...매스컴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실용서. 실용서 내용을 담은 책이다. (한국생산성본부 5천3백원)
- ◇정신과...인간적인 교향악기를 단련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전술한 율령이 담긴 책이다. (천지서문 5천5백원)
- ◇당신 잘 재미있는 여자...전문 작가가 아닌 평범한 사람이 스스로를 바보처럼, 동기호에 여성생존 권다고 생각하며 쓴 자기이야기이다. (보리 4천6백원)
- ◇공연안내
- ◇미술가에게...의상실에 든 도둑 '가'와 '나'의 이야기. 움직이는 미네킨의 등장과 극중형식이 특징인 이원규를 극적 구조와 논리에 철저히 파고들었다. 대학로 세미예술극장 741-6069

## "물을 담은 친구"



서부전선 임진강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임진강을 가로질렀던 철조망을 가슴속에 품고 돌아온 해가형! 비만 오면 가슴이 아프다고... 후배들이 최루탄속에 고생하는 걸 보면 가슴이 쓰러온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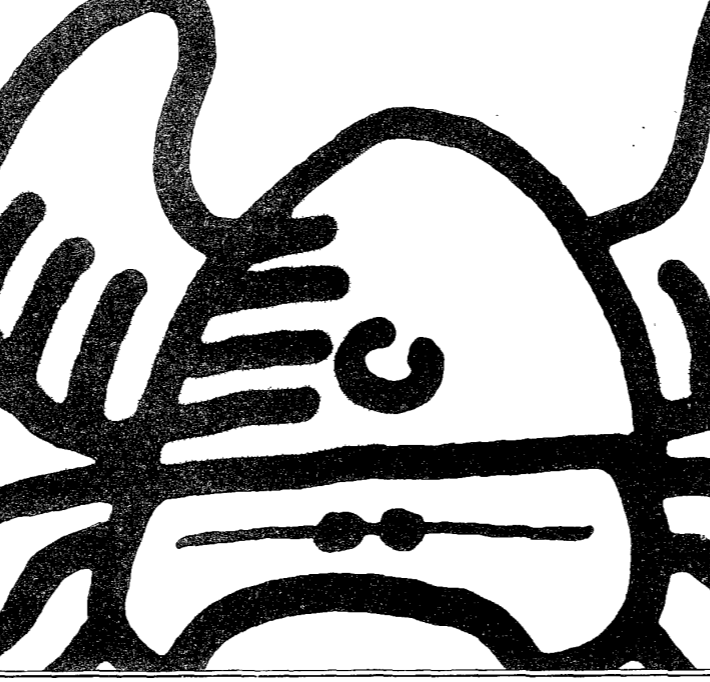


공부도 하고 학점도 따라 되지 않느냐고 물으면 문화도 철학도 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라며 그냥 가슴으로 노래나 하나 부르라는 해가형!

그렇게 두드러진 탈변도 아닌데 조용조용한 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품은 사이에 우리의 가슴을 온통 젖어버리게 만드는 사람-

최루탄가루 얼굴 가득 묻혀가면 허수아비뿔으로 바람뿔이 한 후, 맥주 한잔으로 깨끗이 씻어주는 해가형!

강의실에선 만날 수 없어도 맥주집 찌그노트에서는 언제나 만날 수 있는 사람- 왜 그렇게 찌그노트를 좋아하느냐고 물으면 찌그노트는 치여죽으면 극락에 간다는 인도의 제례용 수레바퀴, 찌그노트에 치이는 것 외에 내가 될 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는 해가형!



떠나고 싶을 때 언제든 떠나고 마음이 드는 곳이면 넘칠 때까지 고여 있다가 모난 사람을 만나면 모난 사람이 되고 둥근 사람을 만나면 둥근 사람이 되는 신기한 사람- 술을 만나면 술이 되고 춤을 만나면 춤이 되고 노래 부르면 노래가 되는 해가형!

물을 담은 친구, 우리의 해가형을 위해 건배!

지하 150m의 100%암반천연수로 만든 -  
**하이트 맥주**



